

순수한 열정으로, 수의사의 자부심으로

- 한국야쿠르트(주) 안면목장을 찾아서 -

대규모 축산단지로 조성된 안면도

아침햇살로 반짝이는 바다를 옆으로 삼교호 방조제를 지나 당진, 서산을 거쳐 우리나라의 지도로 보았을 때 토끼발에 해당하는 태안반도로 들어서자 전형적인 리아스식해안의 대표격인 이 일대에 들쭉날쭉하는 해안의 풍경이 초겨울의 황량한 들판과 더불어 잠시 여정을 불러일으킨다.

안면도를 훨씬 못미쳐부터 시작된 황토색 비포장도로는 전날 내린 비와 도로공사로 엉망이 되어 버려 관광지로의 개발을 한사코 외면하는 안면도 주민들의 보수적인 인상을 강렬하게 느끼게 한다. 강(江) 같은 바다가 안면도와 태안반도를 사이를 꿰고 있었고 이 가운데 굽의 다리라는 안면교(安眠橋)가 놓여져 섬과 육지를 연결하게 되어 있었다.

안면도는 남북 길이 24km, 해안선 232.5km의 큰 섬으로 붉은 황토와 멀쭉히 키가 크고 허리가 쪽 끝은 해송이 섬 전역에서 마음을 사로잡는 섬이었다.

안면도에는 이번호에 소개하는 한국야쿠르트 안면목장 외에도 두산개발 안면목장이 들어서 있어 안면도의 상당한 부분이 대규모 목장으로 개발되어 있었으며, 최근 천광산업이 진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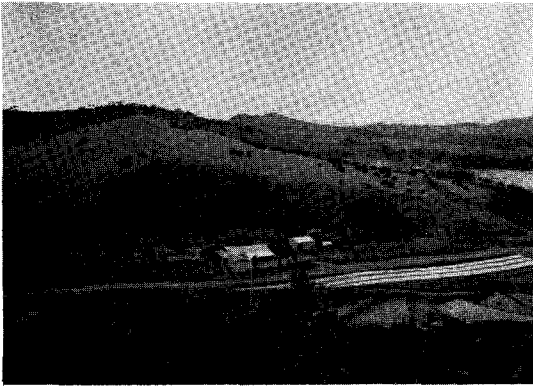
초지 325ha에 1천여두 소사육하고 있어

한국야쿠르트 안면목장은 제 1 사육장, 제 2 사육장, 제 3 사육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전체 초지가 325ha에 홀스타인과 앵거스가 1천마리가량 사육되고 있었다. 종류별로 보면 육성우가 334마리, 비육우가 250마리, 번식우가 306마리 착유우가 114마리로 대체로 1우사를 비육우단지로 2우사를 번식우사로 3우사를 착유우사로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32명에 일급 고용원이 15명 정도이고, 수의사로는 김민수(73년도 서울대 수의대졸)과장과 민미현(83년도 경북대 수의학과졸)씨가 근무하고 있었다.

다습한 해양성 기후로

파이로플라즈마, 호흡기질병 상재

목장의 초지는 경사도가 심해 방목지로서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서해 도서지역의 특성대로 눈, 비, 안개가 많은 다습지역에다가 늘 해풍이 불고 있어 이러한 기후로 말미암아 몇가지 질병이 늘 상재하게 된다고 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iroplasma와 호흡기 질병이며, 여느 목장과 마찬가지로 유방염 방제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외에는 pink-eye가 앵거스에 주로 다발하며



▲초지에 방목되고 있는 앵거스



▲단독해치에서 자라고 있는 건강한 송아지들

한국야쿠르트(주) 안면목장 연혁

년 월 일	연	혁
79. 11. 1	초지조성 허가 50ha 취득	
80. 6. 12	국내산 유우 58두 입식(♀ 28, ♂ 30)	
80. 12. 20	초지조성 허가 50ha 추가취득	
81. 7. 10	호주산 육우 165두 입식(♀ 95, ♂ 70)	
81. 12. 12	제 1 사육장 준공	
82. 6. 5	초지조성 허가 225ha 추가취득	
82. 12. 24	호주산 육우 200두 입식(♀ 100, ♂ 100)	
83. 2. 19	제 2 사육장 준공	
83. 2 - 4	캐나다산 유우 육성우 109두 입식	
83. 9 - 10	미국산 유우 초임우 30두 입식	
84. 9. 28	미국산 유우 초임우 50두 입식	
84. 12.	국내산 한우 및 유우 60두 입식	
85. 2. 17	제 3 사육장 1차공사 완공	
85. 4.	국내산 한우 55두 입식	
85. 8.	국내산 한우(♀) 46두 입식	
85. 9. 1	제 3 사육장 완공(착유우 300두용)	

초지에 자생하는 독초로 인한 중독증이 발생할 때도 있다.

이 목장에 근무경력이 2년째되는 김민수 과장은 오랫동안의 공무원(전 충남가축위생 시험소 근무)생활을 끝내고 이 외로운 오지로 오게 된 동기를 수의사의 본 업무인 임상을 해 보고 싶었고 또 제대로 임상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취약부분인 사양기술까지도 함께 터득할 수 있는 기업목장을 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이곳 안면도에 자리잡은 후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본의아니게 별거하게된 가족이 있는 전주에 한달에 한번쯤 다녀오는 일의엔 빠져서린 귀양(?) 생활로 들어섰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한다.

보람으로 외로움 이기며 일에 몰두

이곳 수의사들은 다른 독신직원들과 같이 양지바른 언덕 밑에 탄탄히 지은 빨간 지붕의 관리사에서 생활하며 오전 8시에 각 우사를 순찰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다.

우사에 있는 모든 소의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타 사양관리상의 주의사항에 관해 목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른바 회진시간이다. 이 회진이 끝나면 환축에 대한 처치를 하게 되며 오후에는 방목장을 순회하며 또 한번의 위와 같은 과정을 수행하여 평상시에는 오후 7시에 일과를 끝내게 된다. 그러나 일과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생기게 되고 치료가 어려운 환축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나 대학 같은 곳에 자문을 구하고 틈틈이 새로 쏟아져 나오는 각종 책자나 팜플렛들은 읽어둔다. 이곳에서의 어려움도 역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인적교류와 정보전달이 늦다는 점이 지적되기 때문에 더욱 살벌하게 정보의 입수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 목장 착유우의 평균 우유생산량은 평균 21kg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

우사도 81년도에 세운 새로운 건물로 전 우군

년중 가축방역 프로그램

구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비고
1.정기소독		_____												주 1 회
2.내부기생충기제		_____												년 2 회
3.Piro 예방		_____												방목전투약
4.진드기구제		_____												수 시
5.파리구제		_____												수 시
6.I. B. R. 예방		_____												생산독우
7.임신감정		_____												전 두 수
8.번식장애치료		_____												월 1 회
9.일반질병치료		_____												공태기간 60 일

의 산차수가 3,4산 정도로 짧은데 그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라고 했다. 또한 김민수 과장은 “현재 목장규모로 보아 2명의 수의사로는 무리한 업무임은 분명하지만 제가 평소에 원하던 일을 하고 있다는 직업적인 만족감이 다른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워낙 외진 곳이라 뚜렷한 사명감이 없으면 근무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만을 이겨낼 수가 없지요.”라는 말로서 직업적 소신을 밝힌다. 이점에 있어서는 대학 졸업후 이곳을 첫 직장으로 택한 민미현 수의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사양관리 형태에 따른 독특한 축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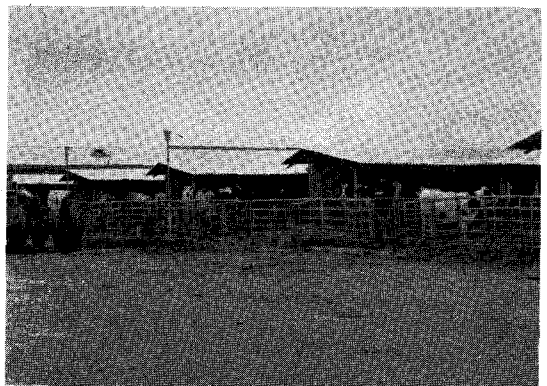
전체 목장을 한바퀴 도는 동안 벼짚을 암모니아 처리하여 비닐로 덮어두는 모습이나 한 마리

씩 사양할 수 있게 지어진 송아지사(calf hutch)에서 자라는 어여쁜 송아지, 아직 녹색이 남아있는 방목지 위에 남아있는 풀을 아끼듯이 먹고 있는 앵거스의 새끼만 몸뚱이들이 늘 푸른초원 위의 얼룩소에만 익숙했던 눈에는 꼭 인상적이었다.

이 목장소의 절반을 차지하는 앵거스는 현재 대관령지역과 제주도 그리고 안면도의 야쿠르트목장에만 사육되고 있는데, 비육능력이 높고 항병성과 조사료이용성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소형종이고 성격이 거칠어 초지에 방목으로만 키울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목장의 제2우사는 앵거스번식우사로 자연종부로 번식을 시키고 있는데 그 성적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했다. 또한 이 목장의 특징은 지



▲진료중에 있는 김민수과장(우)와 민미현 수의사



▲개방식 우사의 모습

붕만 있는 개방식 우사(roofed free stool)로서 이 안면목장의 사업이 처음 구상될 때부터 이 사업을 총괄해 온 박연우 낙농사업부장(66년 서울대 축산과 졸)이 설계하여 지은 우사이다.

이 우사의 특징은 환기에 문제가 없어 질병이 적으며 건축비용이 최소로 절약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목장의 가장 이상적인 사양 형태는 개체별 사양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룹사양방식을 택하여 능력별이나 육성단계별로 그룹을 만들어 사양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능률을 높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외국의 예를 참조하여 축사를 설계하여 축사를 먼저 지어놓고 사양방법을 맞추는 모순과 무리를 없었습니다.”

이상은 안면도의 비교적 온난한 기후때문에 이러한 축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박연우 부장의 설명이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부지런히 서두른 일정이었는데도 야쿠르트목장만 취재하는 것으로 벌써 해가 기웃하였다. 원래는 두산개발목장 까지도 찾아볼 예정이었으나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두산목장은 다음 기회로 미룰수 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 어둠이 내리덮히는 해변가에 펼쳐진 염전과 그 사잇길로 염전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동네여인들이 어둠 속에 희미한 실루엣으로 떠오르곤 하던 것이 안면도의 마지막 기억으로 새겨진다. 안면읍까지 일행을 배웅하고 다시 목장으로 되짚어 들어가는 수의사들의 어깨위로 희미한 눈발이 스치기 시작한다. 안면도에서 맞는 첫눈이었다.

우리가 만나보는 수의사중 목장에 근무하는 수의사들이 가장 거친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열정을 품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그 또한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생활이 권태롭고 아무런 의욕을 느끼지 못하는 날, 야시장에 나가 그곳에 숨쉬고 있는 생생한 활기를 보고 힘을 얻는 것과 같이, 어느날 갑자기 수의사로서의 직무에 공연스런 회의가 느껴지고 온갖 기력을 잃어버릴 때 이 수많은 소들과 부비고, 뛰는 목장의 수의사들을 만나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어쩌면 이 고되고 외로운 업무속에서 수의사로서의 진정한 자부심을 찾아낼 수도 있었기에-.

그리하여 다시 생기있게 일터로 뛰어 들어갈 수 있기도 하겠기에-.

(취재 : 안남신)